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4무량심

초기불교시대에 사회적 유대감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한 가르침이 4무량심이다. 물론 사회 연대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강조하는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교의 기본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연기론에 입각해 있다. 일체의 모든 존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수용하려는 가르침이 연기론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이 가능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어, 나를 불러 손잡게 해' 라는 노랫말이 의미를 지니는 것 역시 연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시대에 연기론에 입각해 무량한 관계 속에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지만,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물어나는 종교 행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세밀한 주의를 필요 했다. 여기서 4무량심이 등장한다.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4무량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비(慈悲喜捨)를 말하는 것이다. 자무량심, 비무량심, 회무량심, 사무량심이다. 자무량심의 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무력함을 주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연민은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뿌리 뽑아 버리는 미덕이다. 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더 이상 그 고통이 증가하지 않길 바라며, 마침내는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동정이어서는 안 된다.

회(悔)무량심은 다른 사람이나 생명과의 교감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의미한다. 교감적인 기쁨이란 다른 사람의 변영을 바라보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인간들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들의 발전과 행복을 반대하고자 하는 심리적 병폐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크게 보면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척도는 물질적인 풍요나 소유의 다소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측면에선 명상이나 특정한 이념, 가치의 추구로 표현된다. 그러나 명상이나 특정한 가치

이웃을 위한 한량없는 4가지 마음 초기불교의 사회유대 위한 가르침

(慈)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풀이하는 것이 상례다.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원어인 마이트리(maitri)는 우정이란 의미에 더욱 가까운 단어이다. 친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거나 친구를 향한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개념에서 우정이란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데 있으며, 그들의 윤택한 면을 알아보는 능력에 근거함과 동시에 '나쁜 의지와 악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고사는 우정을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그들이 우세하면 열등하는 중간이든 그들이 친구이든 적이든 무관심한 관계이든 그들이 다른 존재라는 구별을 하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비(悲)무량심은 다른 사람이나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동물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나 생명은 타도나 정복의 대상이기에 때문에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동물적 상태에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포기 아니면 짐승이라는 퇴보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 없는 것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것은

의 추구 등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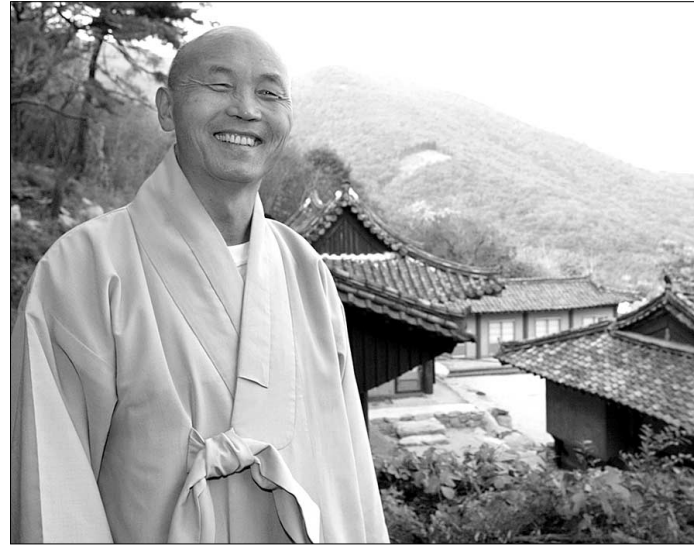
사(捨)무량심은 공평함을 의미한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의 우파크샤(upaksha)를 번역한 말인데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공평함은 두 가지의 지적인 성과물로 본다. 첫째는 모든 존재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함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같은 전형적인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소서!', '존재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이들 존재들과 함께 기뻐할!', '존재들을 차별하지 말고, 다만 공평함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는 사람들의 업이 각 개인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초래한 것일 뿐이다. 자신 만이 자신의 운명을 변경시킬 수 있다. 모든 업의 작용에 대한 통찰은 '무엇이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일을 영위해야만 하며, 아무도 그에게서 이러한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본지 삼일논설위원·불교학 박사>



지 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스님은 늘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 맑은 대지혜, 고요한 대심매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때 참 행복이 찾아온다고 법문한다.

삼독심 몽땅 부처님께 바치고 참마음·참행복의 삶 사세요

여러분은 왜 불교를 믿으십니까? 내가 법문 할 때 사부대중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며, 완전한 행복,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불교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의 기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행복해진다'는 것'에서 "인생의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 것도 없네. 그저 행복 하라는 한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라고 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의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내용도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목표가 바로 참다운 행복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지요. 행복에는 절대적인 참 행복과 상대적인 거짓행복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자정정(本自淸淨)하니 단용자심(但用此心)하면 지로성불(值了成佛)하리라.' 깨달음의 자성, 즉 참마음 자라는 본래 텅 비어 항상 청정하니 이 마음잡아머슴으로 살면 곧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 자유, 대 지혜, 참 사랑 그리고 언제나 고요한 대 심매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의 본래적 내용인 참행복의 상태는 탐욕, 집착, 증오, 성냄, 분노, 불만,

두려움, 격정 등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작용이 잠시동안 참마음과 사이들이 맞는 경우 방해물 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질 때' '간절한 발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싫어진 대상, 두려움 등이 사라질 때'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행복감은 단지 일시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감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뭔가를 원하는 다른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과 안 맞을 때는 짜증, 원망, 미움 등이 행복을 방해해 결국 참다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거짓행복에 속으며 행복의 값증은 해소되지 않아 참다운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거짓행복에 속는 삶의 방식을 소유양식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 방식으로 인간은 결코 참다운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그의 저서 <소유나 존재냐(To have or To Be)>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조건충족만으로 참 행복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충족에서 찾는 거짓행복이 속이 곱없이 갈망하며 만족을 못하고 거짓행복을 추구하는 소유양식의 삶으로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행복이 참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행복이 나의 삶 속에서 꽃필 수 있게 하려면 삶 속에서 행복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 마음속에 있는 참 행복의 '인(因)'이 내 노력의 '연(緣)'을 만나 행복한

아침-저녁 30분씩이라도

일념으로 기도·참선하면서

부정적 생각 비우고 사세요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 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텐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절 승안로역 3번출구앞(동백위암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스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인생이게요 이영숙 원장입니다
이 가을에 시집을 출판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목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가까이:이꺼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제록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가까이:이꺼임)

저서 : 그대 그리울때
가을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고
인생을 갈망하며
그리움으로 울고 있을때
고달픔을 입고 가는
어머니 품속으로 포근한 바다가 있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별의 끝에서 고통으로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자유로와 질때다 ... 성박

부족한 글 외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시(詩)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에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시문(조계사역), 태평서적, 두레문고 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대추, 초 · 재운 신원
확실하고 직접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개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면역, 위과대 뇌 교수들이 의학계 경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일당양기 적용됩니다.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용현 교수)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예방·유아·산도라그랜드 센터장
연세 대학총장

1개월분 180,000원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뇨병진사와 같은 증상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한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 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냉채 산후바람 남 습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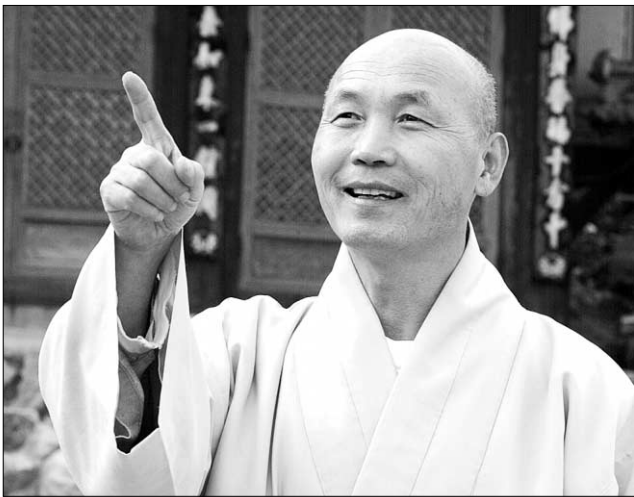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임중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홍경남 신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참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현스님.

행복한 삶 살려면...

반야의 믿음으로 참인간관 확립

모든 현상은 몽환... 집착 놓아야

평화와 고요 갖도록 노력

자비 실천하면 저절로 행복한 삶

살이란 '과(果)'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 뒤음' 또는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 뒤음과 수행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참 행복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이 꽃필 수 있도록 어떠한 마음 뒤음이 필요한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근본결격이 되는 몇 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첫째, 반야의 믿음으로 참다운 인간관(생명관을 확립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참모습나의 참생명은 육체도 감각도 정신도 아닙니다. 인간의 참모습나의 참생명은 마하반야바라밀 · 불성 · 참마음 등(等)으로 불리우는 완전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움직임이 끊어지면 저서 확연히 드러날 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여주시는 이 내용을 확신하고 오직 긍정할 뿐입니다. 이것을 반야의 믿음(般若信), 바른 믿음(正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른 믿음으로 참다운 인간관(생명관)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야의 믿음으로 모든 현상이 꿈같은 것이며 환(幻)인 줄 알고 이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반야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현상은 현상 아닌 것이 그림자일 뿐이지요. 모든 현상은 꿈같은 것이며, 환(幻)이며 그림자 같은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환상 아닌 실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꿈같은 환상이고 그림자 같은 이 현상을 실재라 여기고 이것을 집착하여 붙잡으려고 애쓰며 허덕입니다. 이 속에서 행복을 잠깐 잠깐 맛보지만 그것은 그림자 행복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며 환상에 속는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몽환(夢幻)이요, 그림자 같은 것임을 철저히 알고 이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려야 합니다. 잘 놓아지지 않겠지 만 놓는 실습을 거듭거듭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애착, 집착, 미움, 원망 등)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몽환공화(夢幻空華) 하노파착(何勞把着), 득실시비(得失是非) 일시방각(一時放却)’이라고 <신심명>에 나와있습니다.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공한 줄 알면 그 순간엔 참 행복을 방해한 번뇌가 사라져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으므로 몽환공화 같은 애착과 집착, 미움, 원망, 시기 등을 일시에 다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어려우면 부처님께 똥똥 갖다 바쳐 버리세요. 부처님께 돌질적인 돈이나 정성도 바쳐야 하지만 중생의 시름덩어리인 이런 보따리를 갖다 바쳐도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시니까요. 그러나 걱정 말고 똥똥 갖다 바쳐버리세요. 놓아버리고 바쳐버리면 그만큼 행복합니다.

셋째, 참마음(참 생명의) 본래 상태인 평화와 고요(삼매)가 우리의 삶 속에 깃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참 행복은 번뇌의 뿌리인 예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잠깐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일념으로 기도 또는 참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일념으로 정진할 때 바로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 30분씩이라도 집중해서 일념이 되도록 참선 또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방법으로 '절을 열심히 무이지경으로 한다' '수식관, 기타 관법을 일심으로 한다' '특경 또는 사경을 일념으로 한다' '염불 또는 진언(다라니)을 지극하게 한다' '화두를 참구하거나 마음 챙김(위파사나)을 간절히 한다' '일을 할 때 일과 하나가 되어서 행하지 않는 행위만 있게 한다' 등을 근거에 맞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비행을 통해 공덕을 발원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자비행에는 한없는 공덕이 따릅니다. 자비행에는 부처님의 한없는 위신력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자비행을 행하는데서 부처님의 결핍 없는 위신력은 나타나고 공덕을 성취하며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반야의 믿음을 가지고 거듭거듭 자기를 비우고 바치며 자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자주자주 행하다 보면 점점 순수자비 · 참마음의 출몰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되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위와 같은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행복의 삶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삶을 가꾸는 비결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순간순간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는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epia.com
사진=고영매 기자 ybgo@buddhepia.com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 (1)

산은 어느덧 가을이다. 산에 기대어 사는 모든 것들은 산과 함께 여위어 간다. 그 모습이 쓸쓸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흔적은 없다. 상실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상실이 가을 산에서는 아픔이 되지 않는다. 시간의 순리에 대해서 존재의 운명에 대해서 산과 더불어 숲과 나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산과 나무의 생애는 그래서 아름답다. 어찌 보면 여를 한 철을 살아가도 수승한 수좌의 삶의 빛과 향기를 산과 나무는 그렇게 지니고 있는 것만 같다. 상실이 아픔이 되지 않는 산 아래서 절망과는 다른 버림의 미학을 배운다. 얼마나 깊어와 상실이 절망이 되지 않고 얼마나 맑아와 담연한 그 자리에서 흐려지지 않고 존재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알고 싶다. 그러나 산은 말이 없다. 어찌 보면 산의 그 모습은 말이 끊어진 자리에 존재하는 존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꿈꾼다. 상실과 아픔이 없는 아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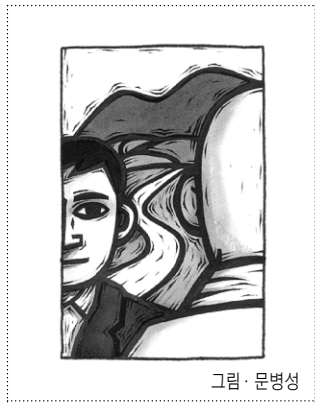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운 존재의 시간을. 그러나 그 시간들은 육망의 터전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육망을 떠날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은 마치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만나게 된다.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는 말처럼 상실도 아픔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산과 같은 삶의 결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 산은 언제나 그리움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피안을 향한 집지 못할 꿈과 그리운 사람에 대한 추억 모두를 가을 산은 그 담담한 바람의 목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호명하는 것이다.

가을 산이 추억을 향해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을 산의 삶의 결을 지닌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 한 때 시간을 같이 하며 가난하지만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던 스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어 도 그저 정대촌 박은옥의 노래를 들으며 어두워진 향토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천호스님의 얼굴이 가을 산 아래서는 선명히 떠오른다.

스님과 내가 처음 만난 것도 낙엽이 지는 가을이었다. 깊고도 깊은 오대산 상원사. 그때 그는 10대였다. 참으로 맑았다. 그가 처음 내게 보였던 미소의 투명함을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왔느냐"는 내 질문에 "걸어서 왔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효봉 스님 흉내 내고 있잖아"하며, 하지만 나의 웃음에는 어떤 적의나 얄팍아픔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 맑고 진실해 보였다. 나는 그의 미소 앞에서 오랜 벗의 친근함 같은 것을 느꼈다. 신발도 다 떨어지고 얼굴도 많이 아وى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련 자의 피로보다는 맑은 진실이 따뜻하게 배어 나왔다.

상원사에 오기까지 그의 행로는 걸어서 왔다. 그의 말을 하나도 위배하지 않는 것이었다. 원주에서부터 걸기 시작해서 장평 지나 봉평 지나 진박 땅 상원사에 오기까지 그는 몇 날 며칠을 꼬박 걸었다고 했다. 왜 걸어서 왔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그냥 걸어서 와야 할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왔다"고 했다. 어쩌면 그는 가장 먼 길을 직접 걸어서 온 출가자 중 한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는 왜 걸어서 와야 했을까. 오랜 시간을 걸어서 와야 할 만큼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추억이 많았을 것일까. 그러기에

슬직 담백한 성격 언제나 편안

"어떻게 왔느냐" 질문에 "걸어서 왔다"

그의 세속 생애가 너무나 짧다. 아니면 차를 타고 절 입구까지 온다는 것이 출가의 이미지 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의 흔적은 읽을 수 없었다. 맑고 투명함 그의 표정은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내보여 주지는 않았다. 걸어서 오는 그 시간 시간이 좋았다는, 그가 남기는 바람 같은 한마디가 내 궁금증을 향한 대답의 전부였다.

그 날 밤 그는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구태여 그의 지나간 생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그리고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먼 길을 걸어서 산문에 이른 사람이라면 출가의 진실 정도는 지니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는 문을 열고 먼 산을 울리며 우리 문 앞에 당도한 바람 소리만큼 함께 들었다. 바람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그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어느 스님이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큰 즐거움이라면 말이. 천호 스님과 그의 만남이 내게는 꼭 그런 것이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기자가 본 지환스님
1967년 해인사 출가, 1969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금강산 범어사선원을 비롯해 해인총림선원, 고불총림운문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정진을 했다.
한때 월간 불광 초대주관 겸 불광법회 기획위원을 맡아 은사 광덕스님을 도와 한국불교 현대포교에 새 지평을 연 불광운동에 헌신하기도 했다.

은사 광덕스님과 불광회운동 주도 기본선원을 수좌사관학교 육성 서원

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리산 금당선원장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겸 통회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스님은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선지식, 본분남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선원의 설립

춘천옥매트 홍삼메딕스
우리가족 건강...
가족 모두가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구경구로 전통홍삼 제조비법 과학화! 정경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육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증숙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판매품: 옥매트 (진품), 홍삼원액, 홍삼제조기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2. 레이키(Reiki) 교육
레이키(Reiki)는 10시20이면 누구나 해마다 오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떤 엔트리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초요법가급 원력자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진)
인터넷 www.Reiki.co.kr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계이름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사명여 따라 다룰 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세움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등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협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범사
중은소식(영험도량)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상에도 잠 못 이루는 분
* 병마에 기워들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명성공을 발원하는 분, 허는말마다 무엇이 거꾸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가장 쉽고 단순하며 단 한번으로 누구나 순간 알아차리고 실현되어지는 수행비전의 비법이 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참선의 기본교육
참신을 氣차게 잘하려면!
* 첫째: 제일먼저 가슴차크라(중단전) 명치를 풀고 단전혈을 뚫어 명치, 배꼽주변에 단단하게 맺힌곳을 풀어주어 들숨시 신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도인명'이고
* 둘째: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지는 자세법 10가지를 마스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수승화강, 두한족역이 확인되고 절대로 상기되지 않는 '자세법'이고
* 셋째: 자신의 본래 호흡을 찾아 부처님 호흡법대로 장출식 단전호흡이 되어지는 신비로운 '자동단전호흡'이고
* 넷째: 행주좌와와 일어를 제일 빨리 일체의 무리없이 극복하려면 수식관, 위빠싸나, 화두선보다 '염불'이고
* 다섯째: 어묵동정, 풍중일여, 속면일여, 오매일여를 극복하려면 '화두'가 최상승의 길입니다.
* 수련일시: 매주 목요일 낮반 오후 1시 ~ 3시
직장인반 7시 30분 ~ 9시 30분
* 수련비용: 임회비 1만원 월회비 3만원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 0035 (팩스)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출구 앞 50M 이랑스 기구 4층